

로스앤젤레스 유권자, 백만 달러 부동산 판매에 대한 새로운 세금 고려



2022년 10월 — 노동 조합 및 기타 조직 연합의 성공적인 청원이 로스앤젤레스 시 서기에게 제출되어 지정된 가격 이상의 부동산 판매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제안은 500만 달러 이상 판매된 부동산에는 4%의 세금을 부과하고 1000만 달러 이상 판매된 부동산에는 5.5%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시의회는 이 법안을 특별 선거 대신 11월 투표에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후원자의 목표는 수익금을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United to House L.A. 제안은 저렴하고 영구적인 주택에 투자하기 위해 수입을 늘리는 데 큰 시간을 할애하려고 합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로스앤젤레스 시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은 물론이고 주택 가격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권자들은 세금 인상과 돈 지출이 로스앤젤레스의 심각한 노숙자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하우스 LA"라고 하는 투표 법안은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주택과 건설 산업에 투입될 수 있는 8억 달러를 모금하기를 희망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워드 자비스 납세자 협회(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와 같은 비즈니스 그룹은 이미 미국에서 가장 높은 세금을 내는 주 중 하나로 캘리포니아의 명성에 기여하는 더 많은 세금을 추가하는 법안에 반대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연방 세율과 달리 캘리포니아는 자본 이득 소득에 대한 특별 세율이 없습니다. 투표 법안의 지지자에는 다양한 노조, 노숙자 서비스 제공업체 및 동맹 단체가 포함됩니다.